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 구약의 연중 3대 절기

[신명기 16:1-8] 아빔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와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빔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무교병(有酵餅)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無酵餅)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네 사경(四境)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무교절은 유월절에 이어 7일간 누룩 없이 만든 떡을 먹는 절기이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이며,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다.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보므로(레 23:32), 유월절과 무교절 첫날은 시간적으로 이어지며, 두 절기는 동일시되기도 한다. 유대 땅에서 무교절 기간은 보리를 추수하는 때이다. 그러므로 무교절 기간에 보리 초실절이 있다(레 23:10-11).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소에 올라가 유월절을 지켜야 하였다. 그들은 무교절 첫날과 제7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했다(레 23:7). 그 두 날은 절기 안식일이다.

[9-12절]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

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칠칠절은 맥추절 혹은 ‘밀 초실절’(출 23:16)이라고도 하는데, 밀을 추수하는 계절 초에 지키는 절기이다. 보리 한 단을 처음 추수한 후에 안식일 다음 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리 초실절’이라 부르며(레 23:10-11), 그때부터 7주간을 지나고 그 다음날, 즉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이며(레 23:16)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린다(행 2:1). 그때는 이스라엘의 온 가족들이 종들과 레위인들과 객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성소에 올라가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여야 했다. 맥추절에는 특히 누룩 넣은 떡 두 개를 하나님께 드렸다(레 23:17). 그것은 죄성을 가진 우리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했다고 보인다.

[13-15절]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收藏)한(거두어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요 절기를 지키는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宴樂)[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은 수장절(收藏節)이라고 부르기도 하며(출 23:16) 가을에 곡식 추수나 포도주와 기름과 열매 등의 추수를 다 마치고 그것들을 창고에 다 저장한 후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이다. 7월 15일부터 7일간이었고 첫째날과 제8일은 성회로 모였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절기 안식일로 지켰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간의 광야생활을 기념하여 7일 동안 나무가지들로 만든 초막에 거하였다(레 23:40-43). 초막절은 1년 중 가장 즐거운 절기이었다. 본문은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온 가족들은 종들과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들과 방문객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며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여야 했다.

[16-17절] 너의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와 택하신 곳에서 여

호와께 보이되 공수(空手)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 연중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소에 모여야 하는 절기이었고 그들이 모일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예물을 드려야 했다.

[18-2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새 관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오직 공의만 좇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공의는 하나님의 법에 맞는 것을 말하며(신 6:25), 한마디로 경건과 도덕성이다. 우리는 공의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사람을 외모로 볼 때 생길 수 있고 또 뇌물을 받을 때도 생길 수 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마땅히 공의만’이라는 원어는 ‘공의를, 공의를’이라는 말로 ‘오직 공의만’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공의만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살 것이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지만, 의는 생명을 가져온다(레 18:5; 롬 10:5; 갈 3:12). 또 사람이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얻을 것이다. 땅은 천국을 예표한다. 의는 생명을 가져오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21-22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柱像)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아세라상과 주상을 세우는 것은 십계명의 제1, 2계명을 어기는 죄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이다.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는 것이 경건이요 의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절 기간의 보리, 맥추절 때의 밀, 수장절 때의 포도주, 기름, 견과류 등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였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처할 곳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 한다. 또 우리는 각종 질병, 특히 세계적 재앙으로 임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각종 사고로부터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 한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의 해방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생활을 지켜주심을 감사해야 하였다. 구약의 연중 3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였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한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어린양이 되셨다(고전 5:7). 보리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예수께서는 부활의 첫열매이시다(고전 15:20). 맥추절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한다. 우리는 성령의 첫열매이다(롬 8:23 약 1:18), 또 초막절 혹은 수장절은 광야 같은 세상 생활과 천국에 들어감을 상징하였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공의만 행해야 한다. 공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경건과 도덕성이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오직 의만 행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교훈했다(롬 6:13).

주일오후설교

요셉이 팔림

[창 37:1-2]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略傳)[자손들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즉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였다. 그들은 때때로 잘못을 행했고 그것을 감추었던 것 같다. 그것은 실상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었다. 요셉이 그런 일들을 아버지께 고한 것은 그의 정직함과 도덕성을 보인다.

[3-4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야곱은 요셉을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것은 그가 하란에서 14년을 지난 91세 때 그를 얻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그의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고 그 어머니 라헬은 그가 여섯 살 때 그 동생 베냐민을 출산한 후 죽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그래서 야곱은 그를 더욱 사랑했고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형들은 야곱의 이런 편애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했고 그에게 하는 말이 친절하지 못했다(NASB, NIV).

[5-11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

컨대 나의 꿈 꾸는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꾸 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라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父兄)에게 고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母)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은 어느 날 그가 꾸는 곡식단의 꿈을 말했다. 형들은 그 꿈과 그의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가 다시 꾸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의 꿈은 더욱 그러했다. 요셉이 꾸는 꿈들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두 번이나 비슷한 뜻을 보이는 꿈을 꾸었다. 이 일로 인해 요셉은 ‘꿈 꾸는 자’라고 불리었다(19절).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지만, 옛날에는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법이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그 꿈을 꾸는 17살 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된 30살 때까지 13년간의 긴 고난의 과정을 견디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12-17절] 그 형들이 세겔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겔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겔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 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은 아버지의 명에 순종하여 헤브론에서 세겔까지 직선거리로 약 75킬로미터 이상인 거리를 갔고 거기서 형들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물어 도단까지 약 20킬로미터를 더 갔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완수하기 위해 충실하였다.

[18-20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누가 주동자인지는 몰라도 형제들이 대부분 동참했

다. 그에 대한 그들의 미움은 그들로 하여금 그를 죽이려는 계획에 동참케 하였다.

[21-22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버지에게로 돌리려 함이 었더라.

말형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원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리려 했다. 후에 그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서 애굽 총독 앞에서 옛날 자신들의 악행을 기억하며 후회했을 때, 르우벤은 동생들에게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하였다(창 42:22).

[23-2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떼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먼 곳까지 찾아온 동생을 형들이 죽이려 했으니 사람은 참으로 악한 존재이다. 그들은 동생을 구덩이에 던진 채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미움은 참으로 무서운 악이다. 미움은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 넣어 잔인하게 굶겨 죽이려 하였다.

[26-28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익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굶겨 죽이는 것보다는 덜한지 몰라도 동생을 팔아 넘기지는 유다의 제안도 악한 것이었다. 후에 율법은 사람을 납치하고 파는 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큰 악으로 규정했다(출 21:16).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미디안 상인들은 이스마엘 상인들 속에 속해 있었던 것 같다. 은 20개는 은 20세겔을 가리킬 것이다. 레위기 27:5에 보면, 5세부터 20세까지의 남자의 값이 은 20세겔이었다. 요셉은 은 20세겔에 종으로 팔렸다.

[29-32절]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

을 취하고 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옷을 보내어 그 아버지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형제들 중 르우벤 외에는 누구 하나 요셉을 위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요셉을 팔 때 르우벤은 거기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야 했다. 그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취하고 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옷을 그 아버지에게 가져와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들의 악한 행동을 이렇게 숨겼다. 그들은 악한 데 영리했다.

[33-35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陰府)(무덤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죽었을까 생각하며 괴로워했을 것이다. 또 자기가 괜히 아들을 심부름 보냈다고 자책했을 것이다. 야곱의 생애는 고생이 많았다. 20년 하란 생활은 수고로웠고 외삼촌 라반에게 큰 압박을 받았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에서 때문에 매우 긴장했었다. 세겔에서 그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괴로운 일도 경험했다. 벤엘을 지나오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고 아들 르우벤이 서모 빌하와 통간한 충격적 사건도 경험했다. 거기에 더해, 그는 이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렇게 철저히 고난으로 훈련시키셨다. 야곱에게 고난은 세상의 애착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었다.

[36절]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는 요셉을 미워했고 자기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를 듣고 더욱 미워했고 마침내 그를 죽이려 하다가 그를 팔아넘겼다. 사람은 심히 죄악되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다(요일 3:15).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롬 12:10).

둘째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꿈은 좌절되었고 고난의 어두움이 그를 삼킨

것 같았으나 꿈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신기하게 이루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말씀 안에서 삶의 목표를 정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고, 고난 중에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셋째로,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렸고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어버렸다. 그는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렸다. 야곱은 고난을 통해 신앙 훈련을 받았다. 신앙생활은 결국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의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한다(마 16:24).

수요일 설교

임마누엘의 표적

[사 7:10-25]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 표적을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 표적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 . .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본문에 반복된 ‘구 날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의 날을 가리킨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온 세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세상은 주인 없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소망하고 순종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범직한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죄는 나라를 멸망케 한다. 이스라엘 나라도 유대 나라도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표적을 주실 것이다.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의 공휼의 표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딤후 1:15). 메시아께서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자로 오셨다(요 1:14). 이것이 구원이며 구원의 복이다. 그 결과,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